

리라 생각합니다.

○金榮煥委員 그런 관행이 있는 건 사실이지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유모씨가 제일은행 은행장으로 갑니다. 은감원 지도국장이었던 이모씨가 제일은행 감사로 갑니다. 금융결제원장이었던 신모씨가 서울은행 은행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 은행임원이 20명입니다.

한국은행 박모씨가 한국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로 갑니다. 한국은행의 오모씨가 안성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간 분이 열일곱 분입니다. 재무부차관을 지냈던 주모씨가 중금협회 회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간 분이 총 10명입니다. 재무부 출신 설모씨가 국민카드의 수석부사장으로 갑니다. 재무부 출신의 오모씨가 BC카드의 대표이사로 갑니다. 이렇게 간 분들이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재경원 출신의 박모씨가 산업리스의 사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간 분이 두 분, 한국은행 조모씨가 롯데할부금융 감사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간 분이 네 분, 생보사에 열세 분 또 손해보험사에 네 분, 증권사에 총 20명입니다. 증권감독원 출신이 서울증권 감사로 간 분이 홍모씨, 증권감독원 박모씨가 한진증권의 감사로 갑니다. 재무부 출신의 조모씨가 건설증권의 대표로 갑니다. 재무부 출신의 정모씨가 LG증권의 대표로 갑니다. 이렇게 가서 97년 말부터 98년 말까지 총 95명이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 참 극적이게도 검찰의 전관예우가 문제되어서 오늘 법무부장관이 2시를 전후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들이 전에 있던 직장으로부터 변호사를 개업해 가지고 사건을 수임하고 그렇게 해서 선배 검사에 대한 예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떡값과 전별금을 받았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재무부·재경원 출신의 증권감독원 출신의 선배가 중금사나 은행이나 이런 곳에 대표이사나 감사로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재무부나 그런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선배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렇게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효율, 이런 부패의 관행, 이런 잘못된 유착풍토 이것을 그대로 두고 적당적당하게 넘어가

고 대충대충하게 한 것이 오늘날의 외환위기를 가져온 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봉건적 관행을 꼭 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견만 말씀주십시오.

○證人 尹增鉉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 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이런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두번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그런 지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든 것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부총재 출신이 모 시중은행 은행장으로 갔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의 그런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은행장 선임을 둘러싸고 어떤 방법으로 은행장을 선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고심하다가 여러 제도가 흘러 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자고 해서 은행장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장추천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행장이 사고가 나서 물러가더라도 열여덟 번인가 추천행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타의에 의한 것 한 번을 빼 열일곱 번이 전부 자체 전무들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 조직의 장이나 간부를 반드시 그 조직의 출신만을 뽑는 것이 효율적이나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수혈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사람이 우연하게도, 예를 들면 감독기관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은 또 인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榮煥委員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진출한 사람 가운데 유독 감사로 가 있는 사람이 14명이나 됩니다. 중금협회를 포함해서 중금사에 18명이나 됩니다. 증권사에 감사자리로 간 사람만 15명이 됩니다. 생명보험사에 감사자리로 가 있는 사람이 6명이나 됩니다. 감사라는 자리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중금사나 은행에서 내부비리를 적발하고 부정을 적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감사들은 어떤 일을 해 왔느냐 하면 감독기관에서 내려오는 감독을 막는 일을 해

왔다는 겁니다. 이 감사들이 감독기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감찰, 감독 이런 업무를 막기 위한 로비스트로 활용이 됐다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증인에게서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관행은 그들이 감사의 기능을 수행하러 간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를 막는 데 치중해 왔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행감독원 출신의 박모씨가 있었습니다. 증인은 벌써 생각이 되실 겁니다마는 그 분이 H종금사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금사 회장이 되고 난 뒤에 재무부의 감독을 받게 되었는데 재무부에서 감독을 하러 온 원모 국장을 회유하고 로비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원모 국장이 6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증인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이렇게만 로비가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해서 뭘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시중은행에 소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이 로비의 통로가 사용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97년 기아처리와 관련해서 기아측이 화의를 신청했을 당시에 화의에 동의의사를 밝혔던 종금사들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마는 재경원의 철회압력을 거부하지 못한 채 재무부차관을 지낸 종금업협회의 주 모회장이 역할을 해서 이것을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로비를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소위 감독원 출신의 인사들이 해오고 있다, 이것을 증인에게서 옹호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이 볼 때는 통곡을 할 일입니다. 바로 은행의 부실을 막고 종금사의 부실을 막고 그리고 보험회사의 부실을 막아야 될 사람이 바로 모피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정도로, 재무부 출신은 다 재무회입니까? 그리고 기획원 출신은 경우회입니까?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다 곳곳에 박혀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부실을 눈감아 주고 지연, 혈연, 학연으로 뭉쳐가지고 적당적당하게 일을 처리한 결과 오늘의 IMF사태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모시고 있던 회사

의 상관이 은행장이 됐습니다. 은행의 감사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있는 그 회사에 재경원과 감독기관의 후배들이 감독으로 나가서 과연 철저하게 부실을 밝혀내고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겠는가, 이 나라의 인간관계와 풍토로 볼 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감독기구 후배들일지라도 대선배가 회장이나 감사로 있는 회사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감사하기는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감사라는 자리에 거의 대부분이 감사라는 자리에 가 있다는 것, 감사가 아니라 로비스트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전관예우를 극복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증인,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좀 고언의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꼭 증인이 답변해야 될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사회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독기관 출신들이 곧 바로 피감독기관으로 움직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좀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런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윤리강령이라고 할까, 윤리장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검사들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관예우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계 내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것이 IMF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 학연으로 뭉치고, K1으로 뭉치고, K2로 뭉치고, 어떨 때는 그것을 인사편중문제로 또 이권개입의 문제로 몰려다니면서 했습니다. 이번에 IMF사태를 규명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런 사실을 듣고서 몸서리를 쳤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는 라인이 尹鎮植, 洪在馨 이런 라인은 기획원 라인이라는 것이고 姜慶植 그리고 金仁浩 라인은 재무부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런 인맥들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런 보고체계를 형성했다는 그런 주장을 한 기사를 보고 이것이 사실유무를 떠나서 얼마나 우리 사회에 이런 분열과 얼마나 이런 분파주의적 경향과 얼마나 배타적 인간관계와 얼마나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 만연

되어 있고 그 뿌리 위에서 학연, 지연, 혈연 거기가 고시1기, 2기, 3기 동기들 그리고 재무부출신은 재무부출신으로 모피아를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인맥만들기의 베타성과 반봉건성 이런 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증인께, 너무나 소중한 증인입니다. 증인께 제가 가슴아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융정책실장 재직시에 증인 밑에서 금융총괄심의관을 맡았던 모 국장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96년2월경부터 97년11월경까지 한화증권, 중앙종합금융으로부터 업무감독과 관련해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은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금시장과에서 일했던 4명의 직원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 돈은 부처의 회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장이나 과장, 주사만 돈을 받고 실장이나 장·차관은 돈을 과연 안 받았겠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쭙어보고 싶은 것은 금융정책실장 재직시에 중금사 등으로부터 과연 회식비 명목으로도 10원 한 장도 안 받았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모 국장이 97년11월 울산 주리원백화점 대출건과 관련해서, 이것은 姜慶植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500만원짜리 그림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주었다는 것 때문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조서를 제가 읽어 보니까 주리원백화점에 대한 대출관계를 조흥은행장 張喆薰에게 부탁한 사람은 증인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姜慶植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림이나 사교비 등을 하나도 받은 적이 여태까지 없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增鉉 金위원님, 환란의 원인을 조사하는 장소에서 이런 질의에 대해서 꼭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단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적당국의 판단입니다.

○金榮煥委員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증인을 그런 점에서 불신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

라 어찌해서 환란의 전 과정을 지켜볼 때 말단 또 실무자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이런 문제들을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지워서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제가 증인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증인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증인을 신문하고 있습니다만 증인은 이 환란의 전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몇 안 되는 그런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어제 논란이 됐던 Kangdsui 총재와 姜慶植 등 1월16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의 모임, 그 자리에도 증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Kangdsui 총재가 우리 나라 대통령들에게 각서를 받는 일 같은 것을 어떻게 주장을 하게 됐을까? 어떤 인식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증인께서 Kangdsui가 어떻게 해서 우리 나라 대통령 후보들에게 그런 것을 질의하게 됐는지, 오늘 주재하고 약간 벗어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證人 尹增鉉 金위원님 저번 질의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당한 많은 아픔에 대해서 저도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지난 연말을 기해서 저도 2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자유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거짓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날 15일 준비회의할 때는 제가 참석을 하고 Kangdsui하고 면담하는 날은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이고, 그때 그쪽에서 온 분이 세 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1급 공무원 중에서 대외담당하는 차관보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대외교섭담당 차관보가 참석을 하는데 저까지 하면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金基桓 대사도 있었는데 金基桓 대사도 저하고 빠지고 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석은 못했었는데 나중에 보고를